

이진아기념도서관
도서관탐방

아름다운 기부로 탄생된 또 하나의 역동적 도서관 일반결함실 없는 지역주민의 복합 문화 공간

지난 9월 15일 개관한 서울 서대문구 이진아 기념도서관(관장 이정수). 이진아 기념도서관이 생기게 된 연유는 이미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았겠지만 도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커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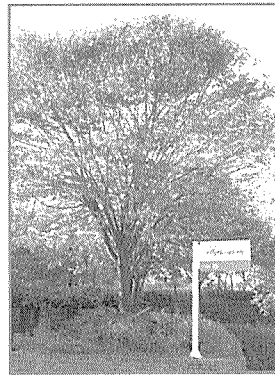
한 중소기업대표가 교통사고로 숨진 딸을 기리기 위해 50억 원을 기부해 도서관을 건립했다. 물론 서울시와 서대문구도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 같은 사례로 미국에서는 카네기, 빌게이츠 등이 도서관에 기부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가들이 도서관을 사회에 기부한 것은 최근에는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주목해 볼 만하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전경〉

접근성 좋은 도서관



〈독립공원입구에 도서관 표지판〉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독립문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가 소요되고 독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았다.

공원에서 낙엽 감상도 하면서 걷다보니 붉은 벽돌로 지어진 도서관의 외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기자기한 모습이 얼핏 그 간 몇 군데 돌아본 기적의 도서관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도서관 밖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에 방금 도서관에서 나온 듯한 어머니와 아이의 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정겹고 흐뭇한 모습 그 자체였다.

특색있는 도서관

1층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숲을 연상시킬 만한 산뜻한 조경, 정보상담데스크와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눈에 띄었다. 정보상담데스크에는 대출증을 발급하려고 기다리는 어린이 이용자, 여러가지 용무로 상담을 하고 있는 성인 이용자들이 보였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입구)



(1층 로비)

그 틈에 도서관문화 편집팀도 사무실의 위치를 물어 친절한 안내에 따라 통유리로 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4층에 내려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기자기한 도서관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도서관을 둘러보기로 하고 우선 사무실로 들어서니 도서관장님과 직원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각 자료실마다 일반열람실(독서실)이 없고 정보열람실만 있다는 것과 각 열람실을 이용 연령층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도서관은 모두 10명의 직원이 있으며 사서직(관장 포함) 5명, 행정직 5명, 공익근무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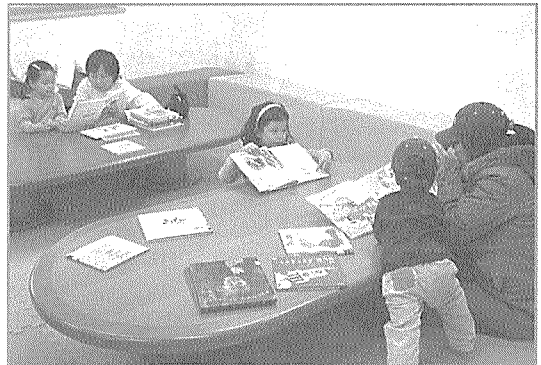
각 실별 스케치

층별 각 실은 장영미 사서의 도움을 받아 설명을 들으며 취재를 진행했다. 각 실 중앙에 참고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었고, 사서가 1명씩 앉아 있어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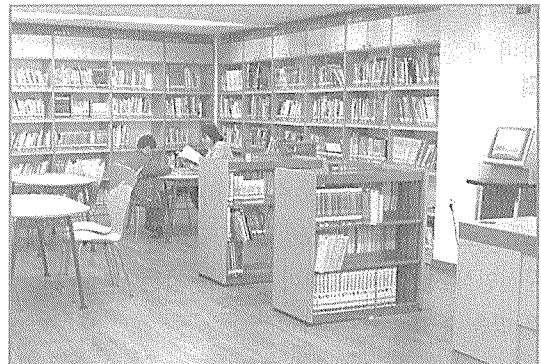
들이 참고서비스를 받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1층의 모자열람실은 36개월 이상의 유아부터 미취학 아동과 어머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규모는 비교적 작았다.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은 초등학생이 CD 및 디지털자료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이다.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의 사서가 모자열람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양실이 마주보도록 위치해 있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에서 모자열람실을 관찰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한 점이 독특했다.

2층의 멀티문화감상실은 중학생 이상의 연령층이 영화·음악·어학 관련 CD나 DVD를 검색하고 비디오 테이프를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CD나 DVD룸에는 편안한 소파가 놓여져 있어 감상을 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었다. 2층에는 또한 문화사랑방·도예방 등이 있어 주부와 어린이들이 독서토



(1층 모자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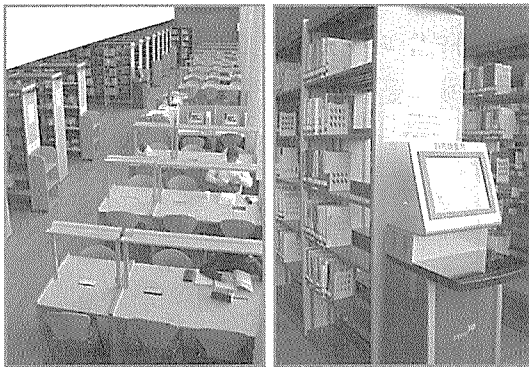


(1층 어린이전자정보열람실)



〈2층 멀티문화감상실〉

론 활동과 공예 등을 할 수 있다. 도예방에는 전기 가마와 작품전시실까지 마련되어 있는 점이 특색 있었다.



〈3·4층 종합자료실〉

〈RFID 시스템〉

3, 4층 종합자료실에는 일반도서 3만 700여권과 연속간행물 120여종 등이 갖춰져 있었으며, 창가 쪽으로 책상과 의자가 놓여져 있어 경치를 감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해 놓았다.

각 열람실의 자료는 서대문구 및 인근 4개구(은평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의 주민들이 직접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무선인식(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특색이 있었는데, 무선인식 시스템에 대해 미숙한 이용자는 사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서들은 "무선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복잡한 업무가 단순화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책 선정작업 등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사서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 독서퀴즈"

열람실을 다 돌아보고 1층으로 내려오니 마침 모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잠시 구경을 하다가 3시부터 진행되는 사서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 독서퀴즈"를 보기 위해 서둘러 2층 문화사랑방으로 올라갔다.

이영란 어린이열람실 사서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넓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종이접기를 이용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꿔가며 들려주고 있었고, 수건을 이용해 모양을 이것저것 바꾸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깊었다. 사서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이용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았던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장, 직원들이 문화행사 기획부터 모든 준비를 함께 했는데 그 이유는



〈사서가 들려주는 "동화이야기 & 독서퀴즈"〉

외부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열람실에서 늘 보던 사서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에게 친근감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깊은 뜻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는지 이야기 듣기에 굉장한 집중을 보였으며 독서퀴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서관문화 편집팀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다른 사서들과 함께 몇가지 동작을 따라해 보았는데 짧은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몇 개를 듣고, 배울 수 있었던 보람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주력할 프로그램

앞으로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사서와 어린이, 어머니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도서관 직원들이 직접 기획할 것이며, 어머니 독서회 회원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어린이 독서지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 온·오프라인의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참고사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보서비스에 주력하는 "미래인 도서관" 가꾸기

어느 신설도서관들처럼 예산, 인력 적인 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의 이름과 지어진 독특한 배경 때문에 주변의 이목이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 즐겁게 일한다"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편안한 도서관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직원들은 말한다.

아름다운 기부로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의 역동적 도서관이 서대문구에 탄생하게 되었다. 정보서비스에 주력하는 도서관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일반열람실도 없었다.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설도서관이지만 적극적인 직원들의 모습과 많은 포부를 갖고 있는 도서관장님을 뵈고 나니 우리가 늘 상상만 하던 "미래의 도서관"의 모습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 뿌듯했다. (글: 심효정, 사진: 최인경)